

장성군 “쌀 생산량 1위 탈환한다”

(단위 면적당)

육묘에서 수확까지 체계적 지원
고품질 농자재 단가 낮춰 공급
공동 방제·가공·유통 지원 등
올해 단보당 500kg 생산 목표



장성군이 쌀 생산을 늘리기 위해 육묘부터 수확까지 체계적인 농가 지원을 펼치고 있다.

(장성군 제공)

장성군의 돋보이는 쌀 생산 지원이 주목을 끌고 있다.

장성군에 따르면 군은 단보당(300평) 쌀 500kg 생산을 목표로 육묘부터 수확까지 체계적인 농가 지원을 펼치고 있다.

장성군의 쌀 생산량은 전남도 내 상위권에 속한다. 지난해에는 집중호우로 4위에 그쳤지만, 2018~2019년 연속으로 생산량 1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성과는 장성군이 운영 중인 ‘단계별 통합지원 시스템’에 힘 입었다는 분석이다.

단계별 통합지원 시스템은 육묘에서 수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걸친, 쌀 재배농가 맞춤형 지원체계다.

먼저 육묘기에는 육묘용 상토, 상자처리제, 비료 등 고품질 농자재를 지원한다. 농자재는 공모를 통해 선정해 단가를 10~20% 가량 낮췄다.

생육기에는 병해충 공동방제를 추진한다. 광역 방제기와 드론 등을 활용해 단계별로 일제히 농약을 살포하는 방식이다. 적기에 농약 살포가 어려운 고령농 등에게 호응이 높다.

장성군은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관할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공동방제를 시행한 이후 이를 지속해오고 있다.

그 결과 병해충 피해가 크게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올해는 전년 대비 20일 이상 앞당겨 공동방제를 추진해 이상 기후로 인한 돌발해충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수확을 마친 농가에는 톨백저울, 곡물건조기, 지게차, 전기운반차 등을 지원한다. 또 택배비, 포장재, 도정시설 개보수비용 등 가공·유통분야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장성군 관계자는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쌀 생산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고품질 쌀 생산 기반 마련에 성공했다”면서 “앞으로도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현장 기술지도도 강화해 단보당 쌀 500kg 생산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나주시 ‘농촌 협약’ 국비 300억 확보

중앙부처-지자체 협업 ‘농촌 생활권 활성화’ 사업

나주시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1년도 농촌협약’ 공모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돼 국비 300억원을 확보했다.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도입된 ‘농촌협약’은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협업을 통해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시·군 주도로 농촌 공간과 생활권 분석을 통해 농촌 생활권 발전 계획을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나주시는 지난 10월부터 농어촌공사 나주시사와 협약을 통해 농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향후 20년 동안의 ‘농촌 공간 전략 계획’과 ‘우선 생활권 5개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왔다.

전남도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계획 수립을 위한 농촌협약협의회, 행정, 민간협의회, 농촌협약위원회 등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운영하며 전문가 자문, 주민 설문조사와 주민이동패턴, 교통통행량 분석 등을 꼼꼼히 진행했다.

시는 우선 생활권엔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국비 300억 등 총 430억원 규모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 기초 생활거점 조성사업 등 17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농촌협약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보강과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따른 농촌 생활권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적극 도모 할 것이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장흥군, 100년도 더 된 토지대장 손본다

지적 기록물 DB화 사업 추진...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

장흥군이 100여 년 전 만들어진 옛 토지·임야 대장에 대해 지적 관련 기록물의 영구 보존 체계 확립을 위해,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舊) 토지대장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

구(舊) 토지대장 고도화 사업은 1910년대부터 1975년까지 작성된 부책식 토지·임야대장 187,500매를 고해상도 컬러 이미지로 스캔한 후 속성 및 대장 정보를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사업이다.

장흥군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지적원도, 세부원도, 토지이동정리결의

서, 지적측량결과도 등 중요 지적기록물을 전산화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저해상도 흑백 이미지로 구축되어 내용 식별에 불편함을 겪던 부분이 해결되고, 신속·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적행정 신뢰도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구(舊) 토지대장 고도화 사업을 통해 지적 관련 기록물의 영구 보존 체계를 확립하고, 고품질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토록 다양한 시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강진군 “인구 3만4000명 지킨다”

주소 바로 두기 권장 등
‘강진품에 살기 운동’ 전개

강진군이 지역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수 3만4000명 선을 지키기 위해 ‘강진품에(愛) 살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강진군 인구는 5월 말 기준 3만4275명이다. 공직자부터 술선수범해 강진에 살 것을 독려하고 관외에 주소를 둔 주민에게 주소 바로 두기를 권장하는 운동이다.

귀농, 귀어, 귀촌을 원하는 도시민을 유치하고 관내 기관·단체 임직원 중 먼 거리를 출퇴근하는 직원에게 강진에서 거주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포스터와 리플릿, 인구정책 안내 가이드북을 제작해 기관별로 홍보하고 있다.

‘강진품에(愛) 안기는 날’을 지정해 기관단체와 기업체를 방문해 찾아가는 주소 이전 서비스도 하고 있다.

‘유공기관 전입 지원금’을 신설해 관내 5인 이상 직원이 근무하는 기관단체·기업의 임직원이 강진



강진군은 ‘강진품에(愛) 안기는 날’을 지정해 기관단체와 기업체를 방문해 찾아가는 주소 이전 서비스도 하고 있다.

군으로 전입한 실적에 따라 전입 지원금을 차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임준형 강진군 일자리창출과장은 “청년층 유출을

막고 청년들이 다시 강진으로 돌아와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i@

담양 뉴비전연구소 사무실 개소

담양의 새로운 미래 가치와 군민의 변화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뉴비전연구소가 문을 열었다.

지난 21일 사무실을 연 뉴비전연구소는 군민의 의견을 취합해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정립하고, 현장의 다양한 진단과 연구를 통해 자생력 있는 도시로 담양을 거듭나게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병노(사진) 소장은 “지난 40여년의 공직생활을 바탕으로 시대적 소명의식을 갖게 됐다”며 “현실의 고통을 동반한 미래 준비는 그 방법을 달리 조정해야 하고, 조화와 상생을 바탕으로 군



형 있는 가치를 추구하는 행정만이 믿음을 주는 지방 자치”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지금까지의 담양은 현실적 문제보다 미래가치에 치중된 면이 있었다”며 “이젠 군민이 직접 변화를 체험하고 소득

을 올릴 수 있는 부가가치 발굴이 절실해져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소를 설립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

함평군, 고교 방문 주민증 발급 서비스

함평군은 오는 25일 지역 고등학교를 방문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은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에 도달한 학생들의 발급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 신청을 받는 맞춤형 서비스다.

함평군은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를 대상으로 사전 접수를 했으며, 오는 25일 방문 발급팀이 함평고등학교를 방문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체온 측정, 손 소독제 비치,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학생들을 대변한다.

/함평=황윤학 기자 hwang@

그린알로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